

제주방언에서의 동사어미 -an/-ən 교체현상

김 원 보

(제주대학교)

Kim Wonbo. 1999. Verb suffixation -an/-ən Alternation in Cheju Dialect.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5, 105-12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verb suffixation -an/-ən alternation in Cheju dialect is a vowel harmony phenomenon between a vowel in a verb stem and either a vowel "a" or "ə" in verb suffixation -an/-ən. To do so, I will account for the verb suffixation -an/-ən alternation in Cheju dialect on the basis of underspecified hierarchical feature organiz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Cheju Dialect, Verb Suffixation, Alternation, Vowel Harmony, Underspecified Hierarchical Feature Organization

1. 서론

국어의 동사어간과 어미 사이에서의 모음조화 현상에 대한 설명은 여러 음운이론 하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그리고 그 설명의 결과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주방언에서 동사어간과 어미 사이에서의 모음조화 현상에 대한 설명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1)1) 제주방언에서 동사어미 교체현상

- a. (i) an + an → anan(안아서)
nok + an → nogan(녹아서)
p'ol + an → p'oran(빨아서)2)
sæl + an → særan(새어서)

¹주로 정승철(1988: 30-32)에서 인용된 자료임. 그리고 그는 /-an/과 /-ən/이 음성적으로는 비음 /n/이 연구개음화 된 [ŋ]이어서 실제로는 [-aŋ]과 [-əŋ]으로 실현되나 모두 [n]으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승철(1988)의 자료를 수정하여 /-an/과 /-ən/의 음성표기를 모두 [-aŋ]과 [-əŋ]으로 했다.

²제주방언에 존재하는 아래아(·) 발음을 [+low, +back, +round]의 음운특성을 지닌 /ɒ/로 명시하고 있다.

- (ii) $\text{ət} + \text{ən} \rightarrow \text{ədən}$ (얻어서)
 (ii') $\text{tatim} + \text{an} \rightarrow \text{tadimən}$ (다듬어서)
 $\text{tətīm} + \text{ən} \rightarrow \text{tədīmən}$ (더듬어서)
 (iv) $\text{cɔmciɪl} + \text{an} \rightarrow \text{cɔmciɪrən}$ (불건이 잘고 가늘어서)
 $\text{kæ}^h\text{il} + \text{ən} \rightarrow \text{kæ}^h\text{irən}$ (거칠어서)
 (v) $\text{kɔmul} + \text{an} \rightarrow \text{kɔmurən}$ (가물어서)
 $\text{mɔmul} + \text{ən} \rightarrow \text{mɔmurən}$ (머물러서)
 $\text{pɛp}^h\text{ul} + \text{ən} \rightarrow \text{pɛp}^h\text{urən}$ (배풀어서)
 b. (i) $\text{manna} + \text{an} \rightarrow \text{mannən}$ (만나서)
 $\text{po} + \text{an} \rightarrow \text{poən}$ (보아서)
 (ii) $\text{kɔlki} + \text{ən} \rightarrow \text{kɔlgyən}$ (갈겨서)
 (iii) $\text{cu} + \text{ən} \rightarrow \text{cuən}$ (주어서)
 (iv) $\text{ap}^h\text{i} + \text{an} \rightarrow \text{ap}^h\text{ən}$ (아파서)
 $\text{əp}^h\text{i} + \text{ən} \rightarrow \text{əp}^h\text{ən}$ (어퍼서; 뒤집어서)
 $\text{sɪlp}^h\text{i} + \text{ən} \rightarrow \text{sɪlp}^h\text{ən}$ (슬퍼서)
 (v) $\text{kæ} + \text{ən} \rightarrow \text{kæən}$ (개어서)
 $\text{se} + \text{ən} \rightarrow \text{seən}$ (세어서)
 (vi) $\text{cillu} + \text{an} \rightarrow \text{cillwən}$ (길러서)

제주방언에서 (1)과 같은 모음조화 현상에 대해 정승철(1988: 32)은 모음 조화로서 설명하기에는 관여하는 모음의 부류가 다양해서 어떤 자연부류로 드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포기하고 다음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2)³⁾ (i)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1a) 다음 -an/-ən의 교체

무관모음(-an/-ən의 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음): i, i, u

a, o, ɒ, æ : a

e, ə : ə

(ii)⁴⁾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1b) 다음 -an/-ən의 교체

³⁾정승철(1988: 31)은 동사어간 모음이 /e/이면 동사어미는 /-an/을 취하는 것으로 하여 /e/를 /a, o, ɒ, æ/와 함께 분류해 놓고는 그것의 예로 $\text{p'es} + \text{an} \rightarrow \text{p'esən}$ (뺏어서)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말의 '뺏다'의 어간모음은 /e/가 아니라 /æ/이다. 그러므로 정승철(1988)이 우리말의 '뺏'을 /p'es/으로 기술한 것은 /p'æs/의 오류이어서 본고에서는 바로잡아 /e/를 /a/와 같이 분류하여 어미 /-ən/을 취하는 것으로 했다.

⁴⁾제주방언에서 동사어간이 /p/로 끝나는 동사어간은 없다. 그러나 /a/로 끝나는 어간은 있다. 이를테면 "서다"의 어간 "서"가 유일한 그 예이다. 그러나 정승철

무관모음: i

a, o, u : a (단, 단음절 /u/로 끝나는 어간에는
e, æ, i : ə /a/가 연결된다)

(1)의 음운현상은 동사의 어간과 어미 사이에 존재하는 모음조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승철(1988)이 이런 모음조화 현상을 규칙에 근거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모음조화 현상 그 사실만을 단순히 나열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동사어간에 전설저모음 /æ/가 올 때 그 동사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면 어미모음이 /-an/으로 실현되는 반면 그 /æ/가 동사어간의 말음이면 어미모음은 /-ən/으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동사어간에 모음 /æ/가 올 때 어미는 상황에 따라서 /-an/이나 /-ən/으로 실현되고 있어서 그런 모음조화 현상을 일관성 있게 기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정승철(1988)의 설명에 따르면 동사어간 모음 /i/와 /u/는 동사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또는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모음조화에 관여할 수도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사실 즉, 모음 /i/와 /u/가 상황에 따라서 모음조화에 관여하기도 하고 관여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모음조화의 설명을 어렵게 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동사어간에 나타나서 모음조화를 유발시키는 모음은 다양한 데 반해서 동사어미에 실현되는 모음은 중설 중모음 /ə/와 후설 저모음 /a/ 뿐이다. 이런 사실을 동사어간과 어미모음 사이의 모음조화 현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사어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음들을 어미모음 /ə/와 /a/에 각각 상응하는 두 부류의 자연부류로 묶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게 두 부류의 자연부류로 묶는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1)의 모음조화 현상을 규칙으로 설명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상호 모순적이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모음조화 현상에 대한 정승철(1988)의 접근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 즉 그는 복잡한 모음조화

(1988)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마도 그 예가 단지 하나 뿐이어서 논의를 생략한 것 같다. 그리고 “서다”의 동사어간 “서”는 다음에서처럼 설명되므로 모음조화로 설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sə] + ən → 모음축약 → sən

따라서 원칙적으로 /ə/도 /e, æ, i/처럼 동사어미 /-ən/을 취하는 부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사어간이 /ə/로 끝나는 경우 동사어미 /-ən/의 실현은 동사어간이 자음으로 끝나지만 그 모음이 /ə/인 (1bii)의 ət] + ən과 동일한 방법으로 쉽게 설명이 되고 또 그 예가 단지 하나 뿐이어서 여기서도 정승철(1988)과 마찬가지로 논의를 생략하고자 한다.

현상을 신형적 자질표시 방법에 근거한 자질 가(feature value) 변화를 유도하는 음운규칙에 근거해서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한 문제가 있다.

결국 이런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정승철(1988)은 (1)의 모음조화 현상을 음운규칙에 근거해서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1)과 같은 음운현상이 동사의 어간과 어미 사이에 일어나는 체계적인 모음조화 현상이기 때문에 정승철(1988)과는 다른 접근 방식에 근거한 음운규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즉 분절음의 계층적 자질표시와 불필요한 자질을 생략하는 잠재표시의 방법을 도입하고 또 동사어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부류의 모음들을 모음조화에 따라 두 부류의 자연부류로 묶는 데 도움을 줄 [retracted tongue root]⁵⁾라는 자질을 도입해서 (1)의 모음조화 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 보겠다.

2. 계층적 자질표시와 제주방언의 모음체계

제주방언에서 모음의 음운현상을 다루기 위해서 여기서는 Lahiri & Evers(1991), Rice & Avery(1991), Lee(1993)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계층적 자질표시모형을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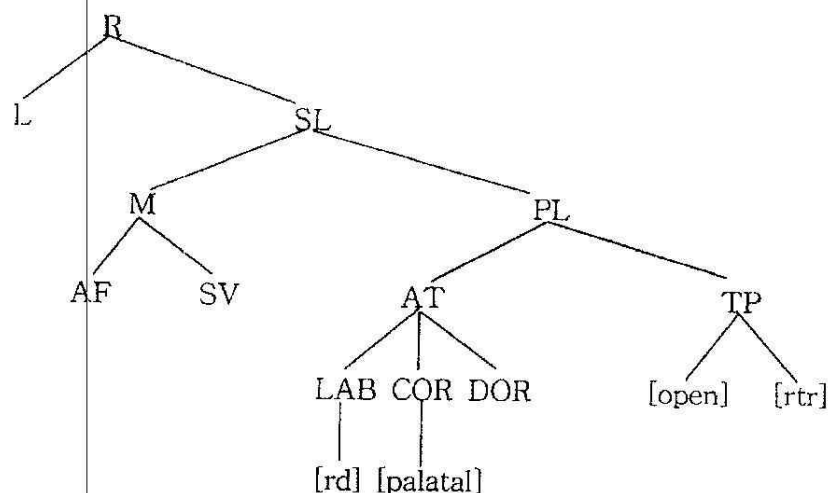
⁵⁾rtr(retracted tongue root)은 조음시 설근이 중립위치보다 뒤쪽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냐에 관련된 자질이다. 그런데 이 자질은 모음을 기술할 적에 Durand(1990: 46-47)이 언급했듯이 [-ATR] 자질에 대략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while [+ATR] vowels can be produced by advancing the tongue root beyond a kind of 'normal' position and lowering the larynx, [-ATR] vowels often involve retraction of the tongue from this 'normal' position and raising of the larynx.

Durand(1990)은 [ATR]자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dvanced, Unadvanced Tongue Root: [+/-ATR]. A positive value for [ATR] corresponds to the drawing of the tongue root forward, thus enlarging the pharyngeal cavity and often raising the body of the tongue as well; [-ATR] sounds do not involve this gesture (Durand, 1990: 45).

(3)6) 자질모형



그리고 제주방언의 모음체계는 표준어의 모음체계에 /ɒ/가 첨가된 9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i, e, æ, ə, a, u, o, ɒ/이다⁷⁾. 이러한 제주방언의 모음체계를 기본적인 자질을 이용해서 간단히 명시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4) 제주방언의 모음체계

	-back	+back	+back
	-round	-round	+round
+high	i	i	u
-high, -low	e	ə	o
+low	æ	a	ɒ

/i/음을 가장 무표적인 음으로 하는 급진적 잠재표시 방법에 의해서 (4)의 모음체계에 나타난 9개의 음을 명시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⁸⁾.

⁷⁾ 자질모형에서 R은 ROOT, L은 LARYNGEAL, SL은 SUPRALARYNGEAL, M은 MANNER, PL은 PLACE, AF는 AIR FLOW, SV는 SPONTANEOUS VOICE, AT는 ARTICULATORS, TP는 TONGUE POSITION, LAB는 LABIAL, COR은 CORONAL, DOR은 DORSAL, [rd]는 [round], [rtr]은 [retracted tongue root]을 의미하는 축약형이다.

⁸⁾ 전설원순모음 /i/와 /i/는 기저모음이 아니라 나중에 각각 /i/ + /u/와 /i/ + /o/의 융합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으로 가정하겠다.

*다음의 예에서처럼 /i/는 폐음절을 개음절로 만드는 데 빈번하게 삽입된다: 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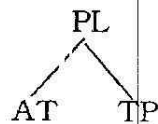
(5) 모음의 급진적 잠재표시⁹⁾

	i	e	æ	ə	a	ɪ	u	o	ɔ
open		+		+					+
palatal	+	+	+						
round							+	+	+
rtr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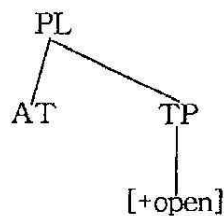
표 (5)에서 음영처리가 된 부분은 급진적 잠재표시 방법에 의해 음운표사에서 생략되는 것이고 음영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만 음운의 자질명시에 나타난다. 그러면 표 (5)에서 주어진 급진적으로 잠재표시된 모음의 음운표사를 가지고 여기에서의 설명에 필요한 부분인 TP 마디를 중심으로 각각의 모음을 명시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e, ə/는 TP 마디에 [+open]으로, /a, o, ɔ, æ/는 TP 마디에 [+rtr]로 명시될 것이다.

(6) 모음의 음운표시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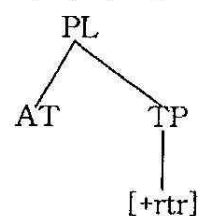
(a) /i, ɪ, u/



(b) /e, ə/



(c) /a, o, ɔ, æ/



TP 마디는 모음의 기술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자음의 기술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음은 AT 마디만 가지고 있을 뿐 TP 마디는 없는 다음과 모습이 되어서 자음은 모음들 사이의 TP 마디 동화현상을 저지(blocking)하지 못한다.

---> 거끄다, 묏다 ---> 무끄다, 췌다 ---> 서끄다. Archangeli(1984)는 음운현상에 있어서 다른 모음과는 달리 해당 언어(방언)에서 빈번하게 삽입되는 삽입모음을 가장 무표적인 음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서도 /i/를 제주방언의 가장 무표적인 음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⁹⁾여기서 /o/와/ɔ/는 네 개의 자질만으로 구별되고 있지 않으나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자질, 이를테면 [tense]와 같은 자질이 M마디 밑에 도입되어 그 두 음을 구별하는 것으로 가정하겠다.

¹⁰⁾Lee(1993: 58)는 [rtr] 자질을 +나 -로 명시되는 양분자 자질이 아니라 단일자 자질로 간주하여 한국어의 모음을 기술하면서 /æ, a, o/는 [+rtr]로 그리고 그 외의 모음은 [-rtr]에 상응하는 [rtr]자질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방언에만 존재하는 아래아 발음인 /ɒ/는 /o/와 비교하여 혀의 위치가 좀더 내려오고 설근이 뒤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발음된다. 그러므로 /ɒ/도 [+rtr]로 기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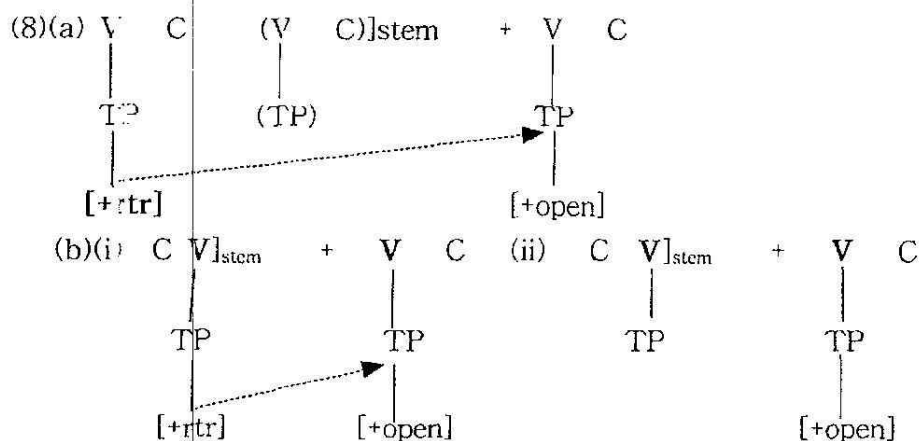
(7) 자음의 음운표시

/C/
PL
|
AT

그러면 (6)와 (7)에서 가정된 모음과 자음의 음운표시를 가지고 (1)에 주어진 제주방언의 동사어미 -an/-ən의 교체현상을 설명해보겠다.

3. 제주방언에서 동사어미의 모음조화 현상

정승철(1988)은 제주방언에서 복잡하고 상호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동사어미 -an/-ən의 교체를 단순한 기존의 음운표시 체계로는 적절히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음운규칙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동사어간과 어미에 나타나는 모음들을 단순히 나열만 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잠재표시가 가능한 자질표시 이론과 모음조화 현상을 기술하기 위하여 도입된 [rtr]이라는 자질을 이용해서 동사어간과 어미모음 사이의 모음조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제주방언에서의 동사어미 교체현상을 잠재표시된 계층적 자질표시 모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동사어간의 모음과 어미 사이에 TP 마디에 달린 [rtr] 자질의 전파로 설명함으로써 일종의 동화현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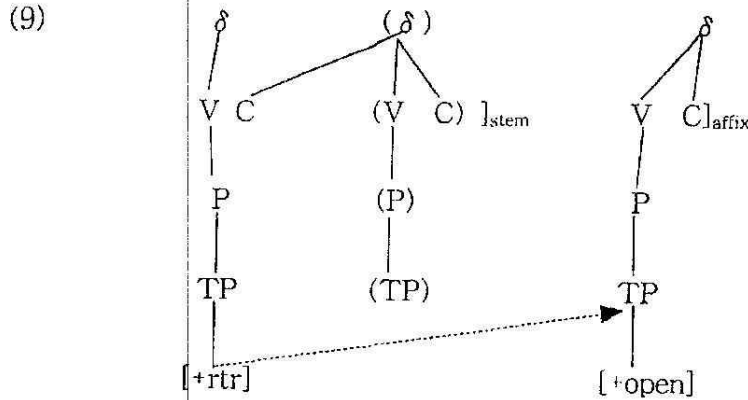
(8a)는 동사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이고 (8b)는 동사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대한 동사어미 동화현상이다. 그런데 두 개의 음절로 구

성된 동사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면 두 번째 음절의 TP 마디를 가진 모음(이를테면 /i, i, u/)은 동사어미의 모음조화에 관여하지 않는 반면 동사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어간 말 모음(/i/와 /u/를 포함해서)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미모음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동사어간과 어미모음 사이의 [+rtr]자질에 관한 동화현상은 두 모음이 이웃한다라는 조건하에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동사어간과 어미모음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일반적 환경인 축발음의 TP마디 밑에 축발자질(trigger, 여기서는 [+rtr] 자질)이 존재하고 목표음에 축발자질에 상응하는 목표자질(target, 여기서는 [-rtr])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두 규칙은 언급된 순서대로 이접적(disjunctive)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8a)에서 첫 음절에 있는 모음이 가진 [+rtr] 자질은 두 번째 모음의 비어 있는 TP 마디에는 전파되지 않고 직접 어미의 TP 마디로 전파되는 것일까? 이런 사실은 [+rtr] 자질의 동화현상은 [+open] 자질을 가진 모음들(고모음을 제외한 모음, 즉 중모음 및 저모음) 사이의 동화현상임을 암시한다. 제주방언의 모음체계를 자질로 명시한 (5)에서 알 수 있듯이 [+rtr] 자질을 내포한 음이면 반드시 [+open] 자질도 내포한다. 따라서 [+rtr] 자질이 [-open]인 음으로 전파되면 제주방언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이 된다. 그러므로 [+rtr] 자질을 전파하는 어간의 축발모음(음에 따라서 [+open] 자질이 명시될 수도 또는 잠재표시되어 명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이나 그 자질을 전파받는 어미의 목표모음(여기서는 /ə/여서 [+open] 자질이 명시됨)은 반드시 [+open] 자질을 내포해야 된다. 이런 사실은 (8bi)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8a)에서 두 번째 음절에 나타나는 모음들(/i, i, u/)은 모두가 [-open] 자질을 내포해서 [+rtr] 자질을 전파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rtr] 자질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다. 즉 [+rtr] 자질의 동화현상은 [+open] 자질을 가진 음들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rtr] 자질이 전파될 목표음은 [+open] 자질을 내포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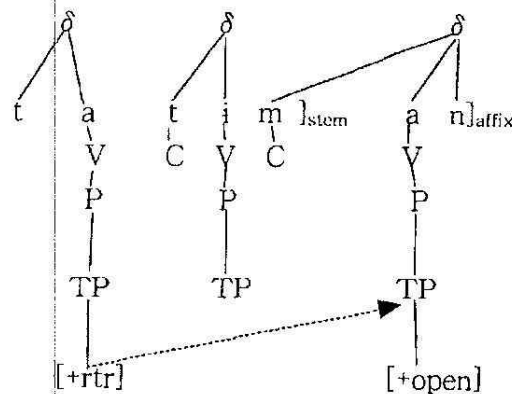
그러면 (1)에 주어진 자료들을 설명해보자. 먼저 동사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1a)에 주어진 제주방언에서의 동사어미 교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사어미의 기저모음을 /ən/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정하면 쉽게 설명¹¹⁾된다.

¹¹⁾ 동사어미 -an/-ən의 교체에서 기저형을 /ən/으로 설정한 이유는 각주 12)의 설명을 참조할 것.



(9)에서 동사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동사어간의 모음과 동사어미의 모음은 바로 인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동화규칙(즉, 촉발자질이 존재하고 목표음에는 그 촉발자질에 상응하는 자질이 비어 있는 환경)이 적용되어 동사어간의 모음이 가진 촉발자질 [+rtr]이 어미모음의 빈자리로 전파됨으로써 어미도 [+rtr] 자질을 갖게 되어 어미의 기저모음 /ə/가 [a]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즉 (1a)에서 tadiman과 같이 어미가 /-an/으로 끝나는 부류는 (10)과 같은 과정에 의해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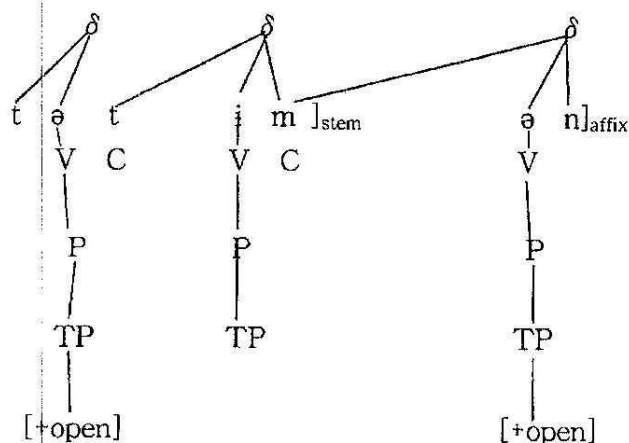
(10) tatin]_{stem} + ə n]_{affix} ---- 전파 ---->



(10)에서 자음은 모음의 기술에만 관여하는 TP 마디를 갖고 있지 않아서 동사어간의 [+rtr]이 어미로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또 모음 /i, u, i/은 TP 마디 밑에 어떤 자질도 갖고 있지 않아서 TP 마디에 달려있는 [-rtr]의 전파를 막지 못한다. 그리고 (1a)에서 tadimən과 같이 어미가 /-ən/으로 끝나는 부류는 다음과 같이 어간모음이 동화현상(전파)을 유발시킬 촉발자질인 [+rtr] 자질을 갖고 있지 않아서 기저모음이 표면형으로 실현되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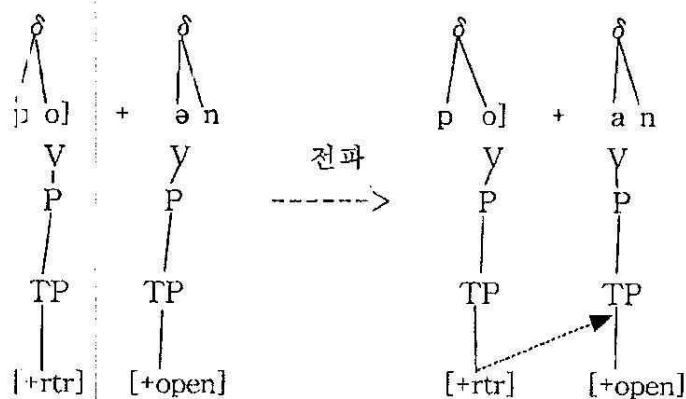
(11)



(10)과 (11)과 같은 방식으로 (1a)에 주어진 자료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설명을 통해서 (1a)에 주어진 자료는 동사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어간모음과 어미모음 사이의 일종의 [+rtr] 자질에 관한 모음조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동사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1b)에 주어진 자료들을 보자. 먼저 (1bi)은 앞서 살펴본 (9)와 동일한 과정인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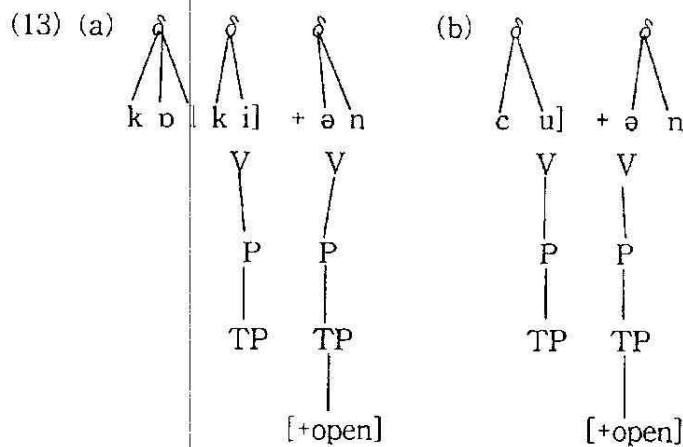
(12)



다음으로, (1bii)의 예를 보면 /kolki + ən/가 [kolgyən]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동사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그 동사어간말 모음이 무엇이든 그 동사어간말 모음이 이웃하는 어미모음과의 모음조화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동사어간과 어미모음 사이의 [rtr]자질에 관한 동화현상은 두 모음이 이웃한다라는 조건하에서만 적용되고 또한 한 번만 규칙의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가정했다.

그런데 동사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1a)의 경우에는 어간말 자음 앞 모음이 /i, ɪ, i/이면 그것들은 다음에 오는 어미모음의 모음조화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사어간과 어미모음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일반적 상황인 축발음의 TP 마디 밑에 축발자질(여기서는 [+rtr] 자질)이 존재하고 목표음에 축발자질에 상응하는 목표자질(여기서는 [-rtr])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rtr] 자질에 관한 동사어간 모음과 어미모음 사이의 동화현상은 두 모음이 인접해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동사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rtr] 자질에 관한 한 그 동사어간말 모음이 뒤따르는 어미의 모음을 결정하므로 (1bii)와 (1biii)은 앞에서 살펴본 (11)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즉 다음과 같이 어미모음과 바로 인접한 동사어간말 모음이 [+rtr] 자질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자질전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음에는 (1biv)의 예들을 보자. 제주방언에서는 동사어간이 모음 /i/로 끝나고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처럼 동사어간 말음 /i/가 반드시 탈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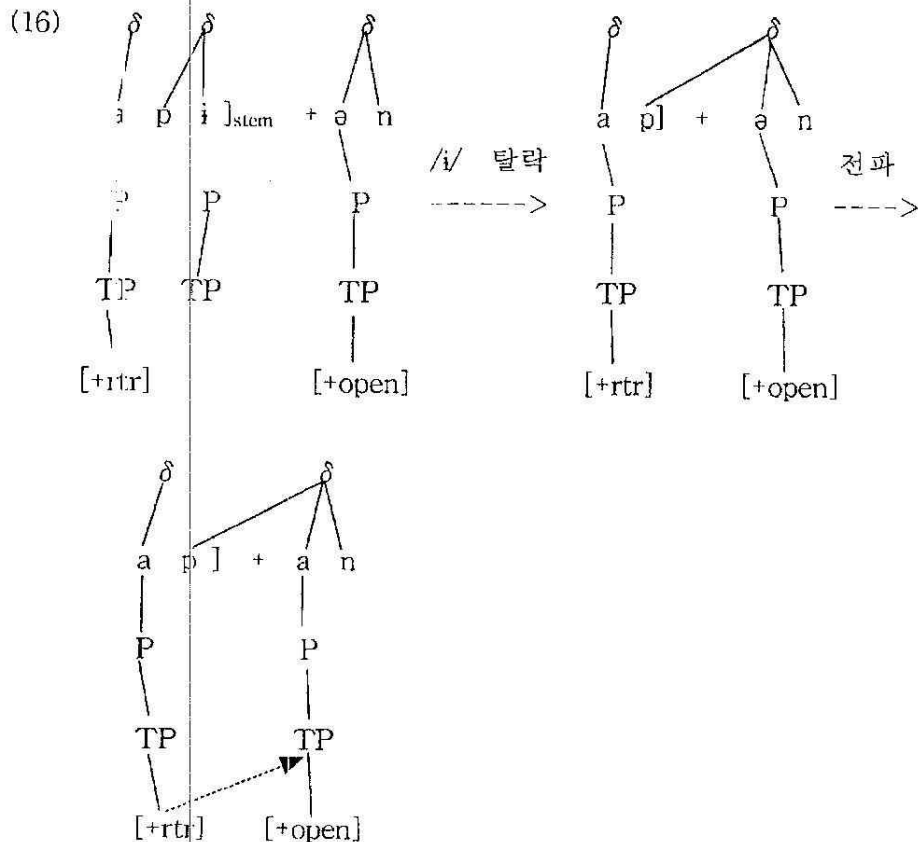
- (14) $\text{cor ki} + \text{ən} \rightarrow \text{congag}$ (잡가서), $\text{k}^h\text{i} + \text{ən} \rightarrow \text{k}^h\text{əŋ}$ (커서)¹²⁾
 $\text{oll} + \text{ən} \rightarrow \text{olləŋ}$ (올라서), $\text{t'olli} + \text{ən} \rightarrow \text{t'olləŋ}$ (따라서)

¹²⁾ 이와 같은 예는 어미의 기저형이 /an/이 아니라 /ən/임을 암시해준다. 만일 어미의 기저형을 /an/으로 가정하게 되는 경우 /ki + an/ 형태에서 /i/의 탈락 전후에 나타나는 /ən/의 실현을 설명할 수가 없다(쓰다: /s'i + an/ → [s'an], 뜨다: /t'i + an/ → [t'en]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그러므로 (14)과 같은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15)에서처럼 제주방언에서 가장 무표적인 음 /i/가 동사어간의 끝자리에 오고 또 뒤따르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 그 어간말음 /i/는 탈락하는 음운규칙을 가정할 수 있다.

$$(15) \quad \begin{array}{c} \text{V C} \quad []_{\text{stem}} + \text{V} \end{array} \xrightarrow{\text{/i/ 탈락}} \begin{array}{c} \text{V C} \quad []_{\text{stem}} + \text{V} \end{ar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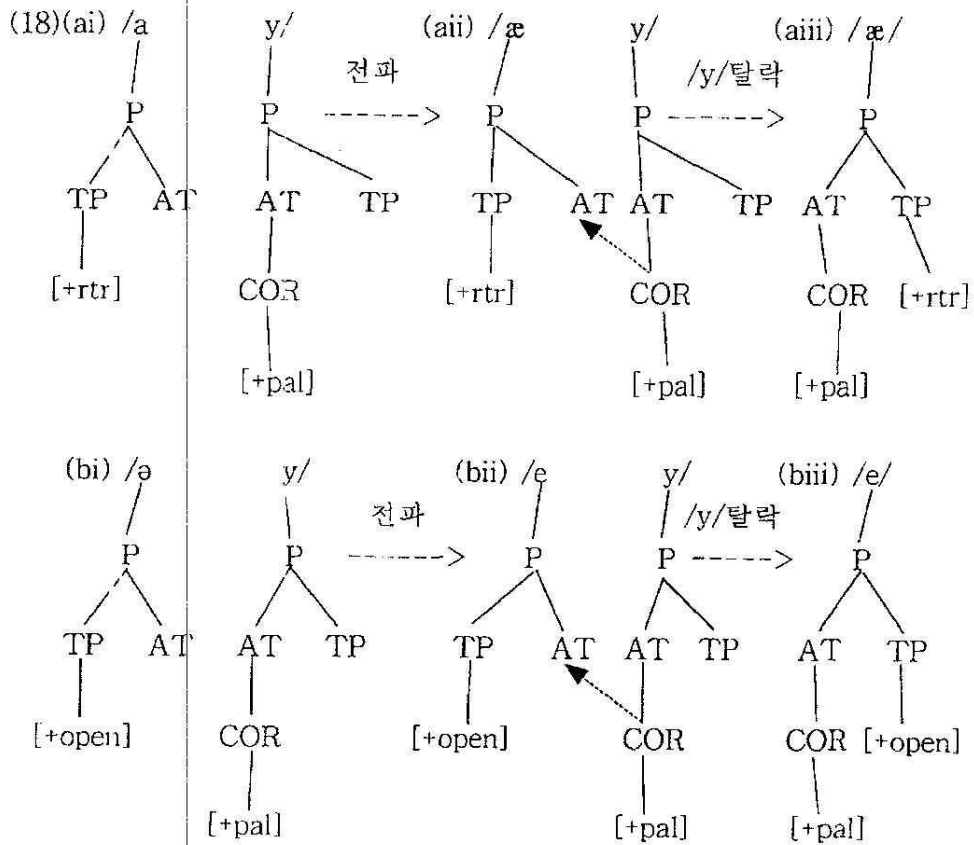
(15)와 같은 /i/ 탈락규칙을 가정하면 (1biv)의 예들은 먼저 /i/ 탈락규칙이 적용되고 나서 어간의 모음과 어미의 모음사이에 모음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쉽게 설명된다. 즉 (1biv)의 예들은 (16)과 같은 과정에 의해 설명된다.



다음에는 설명이 다소 까다로운 (1bv)와 (1bvi)의 예들을 살펴보자. 먼저 (1bv)의 예를 보면 이런 유형의 실제 발음은 (17)에서처럼 두 가지 유형으로 발음된다.

- (17)(a) kæyən/kæən(날씨가 개어서), k'æyən/k'æən(돌을 깨어서),
 mæyən/mæən(김을 매어서), t'æyən/t'æən(불을 지피어서)
 (b) seyən/seən(세어서), teyən/teən(불에 상처를 입어), peyən/peən
 (나무를 베어서)

즉, 동사어간이나 어미에는 원래 없었던 전이음 /y/가 삽입되어 발음되고 있다.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æ/와 /e/는 초기에는 원래 없었던 음으로 이중모음 /ay/와 /əy/가 각각 단일모음화됨으로써 생겨난 음이다. 국어사적인 관점에서 /æ/와 /e/음의 생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세국어에 존재하던 이중모음 /ay/와 /əy/는 /æy/와 /ey/를 거쳐서 현대국어에서 /æ/와 /e/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보수적인 제주방언에서는 /ay/와 /əy/가 각각 /æ/와 /e/로 완전히 단일모음화되고 정착되어서 /y/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ay/와 /əy/가 각각 /æ/와 /e/로 변화하는 과정이어서 그 /y/가 잠재해 있는 상황인 (18aii)와 (18bii)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æy/와 /ey/의 반모음 /y/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으나 동사어간의 말음으로 나타나고 또 어미로 모음이 등장하는 경우 동사어간의 말음 /æ/와 /e/가 어미의 모음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저형에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⁹⁾.

그리고 (17)에서 이중모음인 /ay/와 /ey/ 뿐만 아니라 단일모음인 /æ/와 /ə/도 실현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젊은 층에서 국어 표준어의 영향으로 이중모음에서 전이음이 탈락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단일모음화된 결과이다.

이런 가정에 의하면 (17)에 나타난 예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 (19)(a) kæy]_{stem} + ə n ---재음절화---> kæ + yən
 ---[단일모음화]---> [kæən]
 (b) sey]_{stem} + ə n ---재음절화---> se + yən
 ---[단일모음화]---> [seən]

(19)과 같은 가정에서 동사어간말 모음과 동사어미 사이의 TP 마디 동화현상은 동사어간말 /y/가 재음절화 과정을 겪기 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하면 (17)의 예들은 쉽게 설명이 된다. 즉 TP 마디의 [rtr] 자질에 관한 한 반모음 /y/는 모음 /i/와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반모음 /y/는 /i/처럼 [-rtr] 자질을 가질 것이고 그 [-rtr] 자질은 잠재표시되어 나타나지 않으므로 (8bii)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기저어미 /-ən/이 그대로 표면형으로 실현될 것이다.

다음에는 (1bvi)을 살펴보자. 1음절로 된 동사어간 말음이 /u/인 경우 그 어간을 뒤따르는 어미가 /ən/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13)에서 간단하게 모음조화 현상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두 개의 음절 이상으로 구성된 동사어간 말음이 /u/인 경우 그 어간을 뒤따르는 어미는 다음에서처럼 /ən/이 아니라 /a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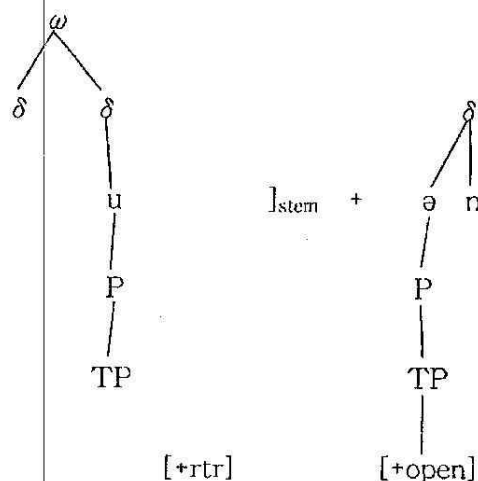
- (20) cillwag(cillu+ən; 길러서), puswag(pusu+ən; 부수어서),

¹⁹⁾[kæyən]과 [seyən]를 설명하면서 기저형에 국어사적인 관점에서 /y/를 설정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기저형을 각각 kæ] + ən 과 se] + ən으로 가정하고 나중에 반모음 /y/가 삽입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처럼 가정하면 왜 반모음 /u/가 아니라 /y/가 삽입되며 또 동사어간이 다른 모음으로 끝나고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poan], [cuən] 등에는 왜 반모음이 삽입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

pak'waŋ(pak'u+ən:바꾸어서), sakwaŋ(saku+ən:사귀어서),
kə:waŋ(kətu+ən:거두어서)

즉 제주방언에서 동사어미의 모음은 동사어간 발음이 /u/인 경우 동사어간이 1음절 이나 또는 2음절 이상이나 하는 음절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음절 동사어간의 경우에는 간단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음절 이상의 동사어간 발음이 /u/인 경우 어미로 /an/이 오는 경우이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주방언에서 /u/가 발음이 되는 2음절 이상의 동사어간의 기저형을 음절구조와 관련시켜서 2음절 이상의 동사어간 발음이 /u/인 경우 그런 음절구조에는 소속이 없는(floating) [+rtr] 자질이 존재하는 다음의 구조를 가정하고자 한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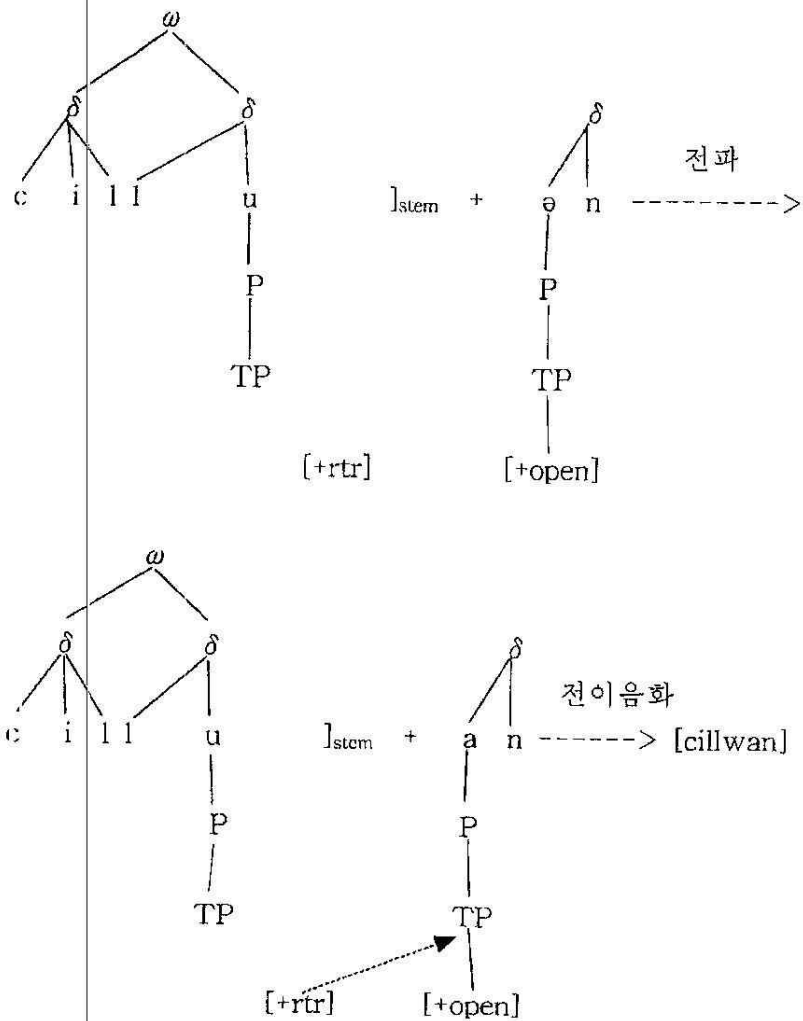
(21)



/u/가 발음이 되는 2음절 이상의 동사어간의 기저형을 (21)에서처럼 설정하면 (1bvi)의 예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된다.

¹⁴⁾여기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Lee(1993: 245-265)는 의태어 내에서의 모음조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floating [rtr] 자질을, 그리고 동사의 어간모음과 어미모음 사이의 모음조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floating [back] 자질을 가정했다.

(22)



(22)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어미실현에 있어서 $[cu\grave{a}n]$ 과 서로 대조적이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20)의 예들이 해결된다.

지금까지 (1)에 주어진 제주방언에서 동사어미의 $-an/-\grave{a}n$ 의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런 교체현상은 정승철(1988)의 생각과는 달리 동사어간과 어미 사이의 모음조화라는 사실을 잠재표시가 가능한 계층적 자질구조하에서 $[rtr]$ 자질을 도입하여 설명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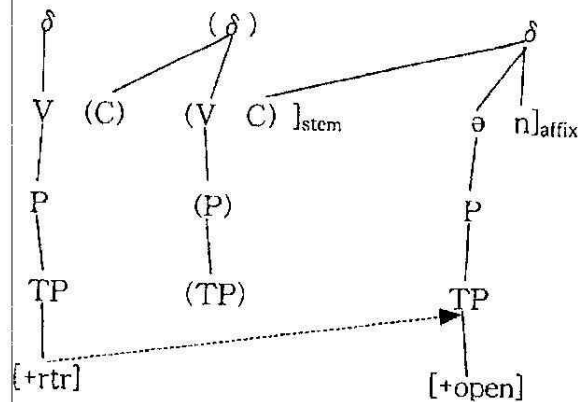
(1)에 주어진 자료들은 동사의 어간 모음과 어미 모음 사이의 모음조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승철(1988)은 이런 모음조화 현상을 음운규칙에 근거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실만을 나열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모음조화 현상이 복잡하고 심지어 상호 모순적인 음운현상인 것처럼 보이는 데 비해서 정승철(1988)의 접근방식은 너무 단순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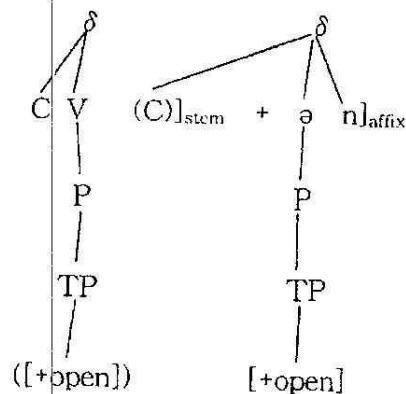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런 모음조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승철(1988)의 접근 방법과는 달리 잠재표시가 가능한 계층적 자질표시 이론과 모음조화에 관여하는 다양한 모음을 적절하게 기술하기 위한 [rtr] 자질을 도입해서 (1)의 모음조화 현상을 설명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1)에 주어진 자료는 동사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되었다.

(23)(a) 동사어간 모음이 [+rtr] 자질을 가진 a, ɒ, o, æ인 경우



(b) 동사어간 모음이 주로 i, u, i, e, ə인 경우



(23a)을 보면 동사어간에 [+rtr] 자질을 가진 모음이 있으면 이 [+rtr] 자질이 어미의 모음으로 전파됨으로써 어간과 어미의 모음 사이에 [+rtr] 자

질의 동화현상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23b)는 동사어간의 모음이 [+rtr] 자질이 없이 TP만으로 되어 있으면 [rtr] 자질에 관한 한 동사어간 모음이 동사어미에 전파해 줄 [+rtr] 자질이 없어서 동사어미의 모음도 [+rtr] 자질이 없는 TP 마디를 유지하게 되어 동사 어간과 어미의 모음 사이에 [rtr] 자질에 관한 TP 마디의 동화현상임을 암시한다.

결국 이런 사실은 동사어간 모음의 TP 마디와 동사어미 모음의 TP 마디 사이의 동화현상임을 암시해서 어간모음과 어미모음 사이의 모음조화라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정승철. 1983. "제주도 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 84, 서울: 국어연구회.
- Archangeli, D. 1984. *Underspecification in Yawelmani Phonology and Morphology*. Ph.D. dissertation. MIT.
- Durand, J. 1990. *Generative and Non-Linear Phonology*. New York: Longman Inc.
- Lee Yongsung. 1993. *Topics in the Vowel Phonology of Korean*.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Sohn Hyar-g-Sook. 1987. *Underspecification in Korean Phonology*.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Lahiri, A. and V. Evers. 1991. "Palatalization and Coronality," In Paradis, Carole & Jean-Francois Prunet ed., *Phonetics and Phonology Vol. 2*, 79-100. San Diego: Academic Press.
- Rice, K. and P. Avery. 1991.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rality and Coronality," In Paradis, Carole & Jean-Francois Prunet ed., *Phonetics and Phonology Vol. 2*, 101-124. San Diego: Academic Press.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
 690-756
 E-mail: fli3c3@cheju1.cheju.ac.kr
 Fax: 82-757-3716